춘향제 무형유산적 가치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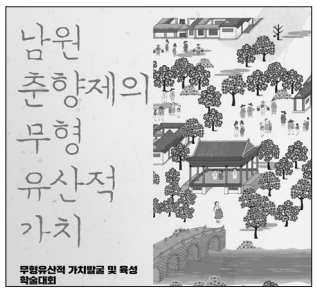
남원시, 가치 발굴·육성 학술대회 갖고 주제 발표·토론 등 진행

남원시가 지난 18일 남원시립농악단 농악전수관에서 '남원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발굴 및 육성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춘향제의 현대적 의미 확장과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남원 춘향제는 1931년 춘향을 기리는 제향이 시작된 이래, 일제강점기, 6·25 전쟁, 민주화 시기 등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도 한해도 거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온 남원 문화의 중심에 있는 무형유산이다.

특히 남원은 춘향골, 춘향의 고장으로 불리고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춘향제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고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정체성을 고취해 왔다.

이에 시에서는 현재까지 이어진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과 전승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미래 무형유산으로서 춘향제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남원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발굴 및 육성 학술대회 포스터

그동안 춘향제는 민속학, 국어국문학, 인류학, 관광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남원 춘향제의 기록과 전승, 정체성과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남원시립농악단 농악전수관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과 미래 방향 및 한국의 무형유산 협약 모범사례 등재에 대해 살펴보고, 춘향제 아카이브 현황과 시민들의 목소리, 무형유산으로서 춘향제 전승 환경 조성과 체계화, 춘향제를 통해 본 춘향의 위상과 의미를 재조명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제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춘향제의 100여 년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특성화 콘텐츠 사업 개발과 함께 춘향제의 무형유산 전승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전승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는 지난 17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와 '임실교통복지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임실군의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

의원 연구단체, 일제 잔재 지명 파악·버스공영제 도입 방안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17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와 '임실교통복지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개월 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규 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 대표의원은 "임실군 관촌, 청웅면 지명 조사를 통해 일제 잔재 지명을 파악하고 지명의 유래를 밝혀 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임실군 전역의 일제 잔재 지명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주영 임실교통복지연구회 대표의원은 "오늘 발표한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임실군의 버스 공영제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색할 수 있었다"며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임실군의 교통 복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종민 의장은 "앞으로도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항상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가을꽃 만발

3색 국화 화단·황화 코스모스 단지 조성 등 화사한 경관 선사

남원권 지리산 허브밸리가 가을빛으로 가득 물들고 있다.

이곳에는 가을을 맞아 진입 광장과 원형 광장 1.2ha 면적에 3색 국화 화단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화사한 경관을 뽐내고 포토 존을 만들어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4ha 규모의 경관 부지에는 황화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지리산의 경치와 함께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허브밸리 내에는 열대식물원, 지리산 자생식물 압화관, 야생화 사진 전시관과 자작나무 숲 등이 조성돼 있으며, 스탬프투어, 식물정원 해설 투어(예약제)와 도자기 화분 꽃 심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특히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워케이션 시설은 허브밸리 경관을 배경으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허브밸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탁 트인 가을 경관을 느끼며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선선한 날씨를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서울 하나로 유통센터서 농산물 판촉행사

순창군의 대표 가을 특산물인 눈꽃 복숭아와 옥광밤이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순창군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서울 양재동 하나로 유통센터(aT센터)에서 특별 판촉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맛과 품질이 우수한 순창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염기남 순창부군수를 비롯해 이병희 농협군지부장, 김교근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지역 농협조합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30여 명의 순창군 관계자들은 행사에 참석해 서울 소비자들에게 순창의 특산물을 직접 소개하고, 그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아울러, 개막 행사에서는 눈꽃복숭아 200알을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시식 기회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날 판매된 눈꽃복숭아는 일반 복숭아와 달리 가을에 수확하는 독특한 품종으로,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가을의 달콤한 보석'이라 불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4~5개입 한 상자를 3만7,800원에 판매했는데, 그 싱싱함과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또 다른 주인공인 옥광밤은 순창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큰 일교차 덕분에 맛과 영양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며. 1kg에 9,98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돼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 행렬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맛있는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순창'이 입소문을 타고, 이는 곧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추진

임실군이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지반침하(싱크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실읍, 관촌면, 신평면 일원에서 추진된다.

임실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에 시행한 임실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023년 사업계획이 수립됐다.

국도비 11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굴착 교체 7.5km, 비굴착 보수 6,484개소 등을 정비하게 된다.

군은 특히 지하 시설물이 많이 매설되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시가지에 비굴착 보수공사 시행으로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튜브를 하수관 내부에 삽입해 보수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교통혼잡과 통행 불편, 소음공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하 매설물의 손상을 줄여 공사비 절감과 민원, 안전문제 발생 등을 동시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관로 통수 기능 확보를 통한 하수 배제 기능 개선, 불명수 유입 차단 등에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 수질 개선,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악취 예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AI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순창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군은 지난 9일 군산시 옥구읍 만경강 하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이달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영일 군수를 본부장으로, 염기남 부군수를 차장으로 하며, 7개 실무반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실무반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 10월 1일부터 관내 59개 농가 260만수의 가금류 보호를 위해 가남, 동계 2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동계면에 농장통제초소를 설치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 실시, 방사 사육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축산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해 축사 그물망 정비, 문단속, 소독 등 차단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일제 점검·정비

임실군이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관내 설치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총 2만3,646개의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 KAIS(행정용 태블릿 PC)'라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각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위치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가로수 등에 가려져 있거나 손상된 시설물들은 신속하게 보수 작업을 마쳤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군민들이 불편 없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